

민원종류
제목
내용

일반민원

은평 경찰서 서장 김현환을 고발한다

고소인: 김명호

피의자: 김현환, 서울 은평 경찰서장

제목: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123조(직권남용), [주차장법], [건축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경찰서장)

공무원은 [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따라,

법령 준수하며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직무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식한 경찰년놈들이 대놓고 법 위반하며 직무유기, 직권남용하고 자빠졌다.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해 3.17일(오후 3:30-4:58분) 은평 경찰서 방문했던 고소인이 직접 경험한 피의자 김현환의 피의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의 사실

(1)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2항 위반

당당한 경찰이라는 쌍것들이 "범죄 소굴"인양 누가 쳐들어 올까봐 바리케이트 죽 쳐놓아 주차장 사용도 못하게 해놓고는 건물은 밖에 설치되어 있는 (바리케이트 연장선의)지하철의 승차 게이트로 드나들게 만들어 놓았다(자료)

이는

[주차장법] 제19조의 4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면 위반하며 국민의 주차권리 행사 방해

(2) 불법 건축물

건물 현관 들어서자마자 바로 왼쪽에는 칸막이 쳐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안에는 의자들, 빵, 커피 음료 등 제공하는 시설이 있었고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게다가 어느 경찰서건 일하는 모습들 한눈에 보이게 탁 트였는데, 은평은 뭘 그렇게 은밀하게 은폐할 게 많은지 불투명 유리로 다 막아 놓았다.

자세한 설명 ⇒ <https://seokgung.com/corrupt9.htm#process>

2. 엄벌의 필요성

답변 자료만 보더라도 무식이 철철 넘쳐 흐른다. 옛말에 "무식한 것들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했듯이, 김현환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무식한 돌대거리 경찰년놈들에게 경종 울릴 필요하다

첨부자료: 은평 경찰서 답변, "범죄 소굴"이라 대국민 상대로 바리케이트 설치

첨부 파일

* 서부지검 사무국 이장근처럼 꾸물대지 말고 즉시 검사에게 넘겨 신속한 수사하도록 해라
jcleee.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검찰청